

해외 플랜트 수주 109억달러 달성

건교부, 2006년 해외건설 수주 165억달러 ... 삼성ENG는 16억달러

2006년 해외건설 수주가 사상 최대인 165억달러를 달성했고, 2007년에는 180억달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.

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, 2006년 해외수주건수는 326건, 수주금액은 164억6800만달러로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던 1997년의 14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.

2005년 108억5900만달러보다는 51.7% 증가했다.

건교부는 국내기업의 수주 경쟁력과 세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7년에는 180억달러 이상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
2006년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중동에서 95억달러를 올려 전체의 58%를 차지했으며 중국과 베트남,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40억달러, 아프리카에서 15억달러를 각각 올렸다.

사우디가 36억달러로 전체의 22%를 차지했고 쿠웨이트 20억달러, 카타르와 오만 각각 13억달러 순이었다.

기업별로는 현대건설이 27억달러를 수주해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중공업(19억달러), GS건설(16억달러), 삼성엔지니어링(16억달러), 대우건설(13억달러), 두산중공업(10억달러) 등도 10억달러 이상을 수주했다.

공사종류별로는 플랜트 분야가 109억달러로 전체의 66%를 차지했으며 토목·건축 분야는 50억달러를 수주해 2005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2/28>